

투데이 칼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누구나 다 한 두 번 좁은 (또는 그 이상) 식품결면포장에 포기된 유통기한 때문에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알파, 어린이집, 유치원 시절에 유통기한 지난 것은 주지도 않거나 먹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기에 상대적으로 엄격하였다.

다만 연세가 있을수록 못 먹고 배를 풀으며 성장기를 보냈기에 하루 이틀 지난 것은 물론 그 이상 지났어도 '뭐 큰일나겠느냐?' '죽기야 하겠느냐?' 하며 스스로 없이 먹는 분들도 있다.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이 살아왔다. 냉장고에 쌓여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보면서 주부들은 적잖이 갈증을 겪기도 한다. 사소한 것 같지만 미음고양이 이만재반이 아니다.

올해부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존의 '유통기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표기사항인 '소비기한'으로 통일될 것이다.

그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식품에는 제조가 되면 '품질안



이 윤 혜

파스코 대표이사

전한계'라는 것이 있다. 즉 먹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제품별 정확한 품질안전한계의 안전기한산정을 설정시험 원칙에 의해 설정된다.

여러 단계의 유통, 저장, 요리 과정을 거치면서 물리, 화학적 변화에 의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안전한계를 설정하고 안전계수에 의해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에 유통기한은 0.6~0.7 정도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0.8~0.9 정도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

로 설정된다.

적어도 20% 정도의 품질유지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만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버려지는 음식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일일평균 음식물쓰레기양은 1만6천 톤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 5만8천 톤의 27.6%를 차지한다고 한다.

연간 548만 톤에 달하는 식품폐기량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조960억 원에 달하며, 이 밖에 유통, 보관 과정에서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지는 식품 폐기 규모는 연간 1조 5,4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처럼 막대한 경제손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안정적인 식량공급,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식품 손실과 폐기를 줄여야 함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의 차원에서 식품 손실, 폐기를 줄이고자 하는 의식이나 의지, 전략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코로나 19의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 비료, 곡물가격, 원부자재 공급가격은 나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생계비가 부담이 되는 계층의 경제적, 심리적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는 먹는 것이 단순히 생명 유지, 건강증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차원에서도 국방, 무기이상으로 아주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

특히 식량자급률이 30%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은 식량공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국제정세는 나날이 변해간다. 식량도 전쟁무기 이상으로 활용된다. 코를 잡고 있어도 배어가는 세상이다. 먹는 것의 7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사설

가상화폐 테라 사건 전말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로 입건된 테라폼랩스 임직원 재산에 대한 검찰 추정보전액이 현재까지 2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부동산을 중심으로 2천 1백억 원대 재산을 추정 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에 대해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피의자들의 재산 소유 현황은 계속 파악 중이며,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전(前) 대표의 자택을 가압류하는 등 현재까지 재산 1,000억 원가량을 추정 보전했다.

검찰은 대표가 테라와 루나를 운용하면서 챙긴 부당 이득 규

모를 1,541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숨은 자산도 추적해 동결 조치할 예정이다.

대표는 루나가 정식 발행되기 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싸게 팔면서 1,400억 원대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이득 규모가 그보다 100억 원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대표를 제외한 테라 임직원 7명이 벌어들인 부당이득 규모를 1,6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1,14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관계사 김모 대표와 테라폼랩스 전 임원의 주택과 토지 등도 가압류했다.

두 사람의 범죄수익을 각각 791억 원과 409억 원으로 보고 추징보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테라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 시작 전후로 발행된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전북 도내도 심각한 가뭄

올해도 봄 가뭄이 심상치 않다. 전북도 평균 지수율이 50 퍼센트 정도까지 떨어져 농업용수 부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땅 속에 지하수를 모아 댐다가 필요할 때 쓰는 지하함이, 가뭄 피해를 줄이는 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에서 팔팔 쏟아져 나온 물이 수로로 흘러간다. 하천 바닥 땅 속에 높이 7미터인 콘크리트 벽을 8백 미터 정도 둘러 세워 가둔 지하수이다.

지하수층 위에 모래와 자갈을 덮어 증발을 막고 지류량을 늘렸다. 이 지하법은 정읍 내장저수지 저류량의 절반 정도인 물 2백50만 톤을 가둘 수 있다.

근처 농경지 99만 제곱미터에 하루에 1만 6천 톤가량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가뭄 걱정을 덜었다.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물을 수 있는 게 최고 편하다. 가뭄 피해 상관없이 활용하고 있다.

이 하천 바닥 아래에도 높이

7미터가 넘는 벽을 2백 미터 정도 세워 지하수를 가둬 놓았다. 강수량이 적을 때에도 농경지 1백34만 제곱미터로 물을 흘러보낼 수 있어 가뭄 피해를 줄이는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가뭄이 발생했을 때 지상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양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지하에 물이 있기 때문에 가뭄에도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강원도 속초시는 2년 전 완공한 지하댐에서 먹는 물까지 공급받아 물 걱정을 덜고 있다. 보나 저수지를 만들어 지표수를 활용하는 건 환경 훼손이나 주민 반발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지하댐은 저수지를 건설할 때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전국의 지하댐은 7곳이다. 가뭄이 찾아지고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지하댐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완벽한 안전 수칙 준수로 안전한 나들이 즐기자

완전한 봄기운으로 꽃들은 단개하고, 따뜻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각종 축제가 열리지 못하다가 거의 4년 만에 축제다운 축제가 열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열리는 행사는 약 157건으로 그중 절반 정도인 82건이 4월에 열린다.

축제와 행사가 많은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만큼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 또한 높아진다. 다음과 같이 안전 수칙을 잘 준수했으면 좋겠다.

첫째, 줄을 서서 차례로 이동하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무엇보다 질서가 중요하다. 혼잡한 상황에서는 줄을 서서 차례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 또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이동하면서 앞사람을 밀치거나 급하게 뛰어가는 것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 둘째, 높은 곳이나 안전선 밖으로 가

지 않기. 축제는 대부분 공연이 함께 진행되는데,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경우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아 관람석이 아닌 다른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안전선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동은 추락·미끄러짐의 위험이 있으니 지정된 관람석에서 공연을 즐겨야 한다. 셋째, 안전요원의 지시 잘 따르기. 전체적인 행사의 안전을 위해 행사 주최측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원활한 교통상황 및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입·퇴장 시간에는 사람이 가장 몰리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잘 따라주면 좋겠다.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주최측의 철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관람객들의 성숙한 안전의식도 필요하다.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봄을 마음껏 즐기면 좋겠다. 최해진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튀르키예 지진서 구출된 아기, 54일 만에 엄마와 재회



지난 2월 튀르키예 지진 발생 5일 만에 진해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아기가 54일만에 어머니와 재회했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사진은 장관의 주선 하에 어머니와 아기가 만나는 모습.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featuring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ship on the sea and the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s who give courage and hope). It includes a testimonial about the newspaper's quality and a call to action for subscriptions.